

# 88년만의 쿠바 방문... 오바마 “3시간 걸렸다”



바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가 20일(현지시각) 쿠바 수도 아바나의 호세마르티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아바나에서 정치범 부인들의 모임인 '레이디스 인 화이트'(Ladies in White)의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22일에는 아바나의 알리시아 알onso 대극장에서 국영TV로 생중계되는 대중연설을 한다. 그는 이 연설에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기회가 더욱 풍부한 쿠바의 비전을 제시하고 쿠바인이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인 탬파베이 레이스와 쿠바 야구 국가대표팀 간 시범경기도 포함한다. 쿠바 정부는 시범경기 초대권을 허가받은 학생·직장·체육 단체 등에만 배포했다. /연합뉴스

## ‘가깝고도 먼 나라’ 미국-쿠바 2박3일 정상회담 ‘냉전’ 깨는 역사적 행보... 인권 문제 거론 주목

바라 오바마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 쿠바 땅을 밟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부인인 미셸 여사와 두 딸인 말리아와 사샤, 장모인 마리안 로빈슨과 함께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의 호세마르티 국제공항에 전용기 편으로 도착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우산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미셸 여사와 나란히 전용기에서 내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의 영접을 받았다.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1928년 1월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미주회의의 6차 연례 회의에 참석할 켈빈 콜리저 대통령 이후 88년 만이자 역대 2번째다. 이번 방문은 미주 대륙에 남아있던 마지막 냉전 구도를 깨기 위한 역사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방문 길에 약 40명의 의원과 10여명의 기업 총수도 동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박 3일간 쿠바를 국

방문하면서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 대중 연설, 미국 메이저리그 팀과 쿠바 국가대표팀 간의 야구 시범경기, 반정부 인사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방문 첫날에는 숙소에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만나 “쿠바 국민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928년에 콜리저 대통령은 전함을 타고 3일 만에 이곳에 왔지만 난 3시간밖에 안 걸렸다”며 웃기도 했다. 대사관 직원들을 만난 이후에는 일가족들과 함께 밧줄기가 끊어진 아바나 구시가지를 도보로 둘러봤다. 대성당을 찾아 양국의 국교 회복 과정에서 비밀회담을 추진했던 하이메 오르테가 추기경도 만났다. 대성당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아바나 시민들이 모여 박수를 치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연이어 외쳤다.

## ■ 미국-쿠바 관계 단절·복원 일지

1898~1902년	미국, 쿠바 점령 뒤 명목상 독립 허용
1959년 4월	피델 카스트로, 미국 방문·자유선거 약속
1961년	외교 단절
2002년 5월	카터 전 대통령, 미국 지도자로 첫 쿠바 방문
2008년 2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 선출
2014년 12월	관계 정상화 선언
2016년 3월 20일	오바마 대통령, 2박3일 쿠바 방문

이어 21일에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아바나 대통령궁에서 카스트로 의장이 주최하는 국민 만찬에 참석한다. 앞서 카스트로 의장은 지난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53년간 지속된 대 쿠바 금수조치를 해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카스트로 의장의 형이자 쿠바 혁명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와는 만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2일에는 아바나의 알리시아 알onso 대극장에서 국영TV로 생중계되는 대중연설을 한다. 그는 이 연설에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기회가 더욱 풍부한 쿠바의 비전을 제시하고 쿠바인이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인 탬파베이 레이스와 쿠바 야구 국가대표팀 간 시범경기도 포함한다. 쿠바 정부는 시범경기 초대권을 허가받은 학생·직장·체육 단체 등에만 배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쿠바 방문에서 대(對) 쿠바 금수조치 해제문제를 비롯해 양국관계 정상화 추진 상황과 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되는 현안들을 점검하고 진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카스트로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정치범 문제를 비롯한 인권문제도 정식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반체제 인사들, 인권운동가들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쿠바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반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사전정치 작업을 벌였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 천하삼분지계 제갈량

제갈량(諸葛亮, 181~234)은 산동성 기남현 출신으로 자는 공명이다. 후한 말 유비를 도와 위·오·촉의 3국 시대를 탄생시킨 주역이다. 후한 말은 “사방 1척의 땅, 한 사람의 백성조차 한나라의 것은 아니다”라는 말처럼 유래없는 난세였다. 그는 형주의 용주이라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학문에 정진하였다. 당시 형주에는 중원의 전란을 피해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었다. 최후평, 서원지, 맹공 위, 방사원 등이 함께 공부한 학우들이었다. 그는 멸망 직전의 한 황실을 부흥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형주의 명사인 황사언은 그의 재능을 꾀뚫어 보고 자신의 딸을 시집보냈다. 그의 처는 춘여여사 당시 사람들은 “공명에 게 아내 고르는 법만은 배우지 마라. 볼품없이 못생긴 춘여를 얻었으니”라고 흉을 보았다고 한다.

이후 유비의 촉나라는 관우의 죽음, 이릉 전투 대패 등으로 위기에 빠져들었다. 형주를 지킨 관우는 조조군을 치기 위해 강릉에 주둔한 대군을 빼다가 역습을 당해 오나라에 죽임을 당한다. 이릉 전투 역시 오의 맹장 육손의 계략에 빠져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223년 유비는 백제성에서 임종을 맞이한다. “귀하의 재능은 조비의 심배다. 만약에 대를 이을 내 자식이 보좌할만하면 이를 보좌해주고, 만약 재능이 없으면 귀하가 스스로 대신하라”는 유언을 남긴다. 공명은 “신은 고공의 힘을 다할 것이다”라며 충성을 맹세한다. 촉나라의 운명은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모든 힘을 다해 죽은 후에야 그만둔다”는 ‘국궁진쇄 사이후이’의 각오로 국정에 올랐다. 먼저 주적인 위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뒤늦게진 오나라와의 외교관계 정상화가 시급했다. 사신 등지를 보내 군사동맹을 회복시켰다.

## 적벽대전 대승 이끈 지략가

그에게 용비의 기회가 온 것은 유비의 ‘삼고초려’ 덕분이었다. 207년 유비와 공명이 만나게 된다. 이때 유비는 47세, 공명은 27세였다. 유비는 201년부터 형주의 유표 휘하에 들어갔다. 뛰어난 참모를 찾던 그는 공명의 초가집을 세 번이나 찾아가다. 제갈량전에는 “이리하여 유비는 마침내 제갈량을 방문했는데, 세 차례나 찾아가던 뒤에야 비로소 만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유비에게 천하삼분지계를 내놓는다. 유비가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여 조조와 손권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오나라의 손권과 연합하여 위에 대처하고 천하통일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가 남긴 응중대(隆中對)는 “만약 형주와 익주를 동시에 차지한다면 지형적 장애에 의존하고... 손권과 사이 좋게 지내면서 내치에 힘을 쓸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다. 유비의 막료가 된 공명의 최우선 과제는 조조를 상대하는 일이었다. 그 유명한 적벽대전은 그의 계책에 힘입어 조조의 참패로 끝난다. 이후 여세를 몰아 형주를 차지하고 유장이 다스리던 익주까지 병합하여 그가 구상한 천하삼분의 구도가 실현되었다.

중원 진출의 교두보인 한중 지방 경영에 온 힘을 쏟았다. 사람들을 이주시켜 경작을 장려해 한중 지역을 활성화시켰고 안정적인 군량미 조달의 기틀을 마련했다. 촉나라 배후에 있는 남만 지방을 정벌해 배후를 안정시켰다.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주는 칠종칠금(七縱七擒)의 전략으로 민심을 복속시켰다. 227년 그는 후주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리고 북벌에 나선다. 출사표는 정감과 논리를 두루 잘 갖춰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킨다. 유협은 “뜻을 다하고도 문리가 잘 소통되어 표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5년의 북벌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234년 오장원의 진중에서 운명한다. 그는 성신(聖臣)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주군에게는 충신이었고 뛰어난 정치가였으며 백성을 아끼는 애민가였다. 무엇보다도 청렴결백한 처신으로 후세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유선에 게 올린 상소문에서 “신은 뽀나루 800 그루와 밭 15경을 갖고 있어 자신들의 살림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무덤은 관이 들어가면 족하고, 입던 옷으로 엮을 하며 다른 부장품은 넣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 日 학자 “위안부 왜곡 교과서, 아베 정권 압력 탓”

###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출판사, 검정 통과위해 눈치”

일본 교과서 출판사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적 견해에 놀려 군위안부 문제 등에서 확립된 인식에 따른 기술을 못하고 있다고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지적했다. 와다 교수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8일 검정을 통과한 몇몇 일본 고교 역사 교과서의 군위안부 관련 기술에서

강제성이 종전에 비해 흐려진데 대해 ‘군과 관련(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했다. 와다 교수는 “출판사와 집필자는 확립된 인식에 입각해서 기술해야 하는데 (교과서 검정을 하는 문부과학성이) 정권을 가진 쪽이다 보니 아베 총리의 의견에 압력을 느낀 출판사들이 과잉반응한 나머지 (검정을 무사히 통과하게끔) 안전하게 기술하려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출판사들의 안전운행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와다 교수는 내다봤다. 18일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중 시미즈(清水) 서원 교과서는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군에 연행돼’라는 종전 교과서의 표현을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라는 표현으로, 도쿄서적 교과서는 ‘위안부’로 풀려갔다’는 표현을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는 표현으로 각각 바꿨다. 또 간토(關東) 대지진(1923년) 당시 조선인 학살 진상 규명 운동에 참여한 다

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센슈(専修)대 교수는 실상과 한참 거리가 있는 희생자수(약 230명)가 ‘정부 견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에 병기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나카 교수는 “최근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조선인 수천명이 희생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230명은 지나치게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교(實教) 출판 교과서는 간도 대지진 당시 학살 희생자 수에 대해 “군대·경찰이나 자경단이 6000 명 이상의 조선인과 약 700명의 중국인을 학살했다”고 기재해 검정을 신청했다가 지적을 받고는 “매우 많은 조선인과 약 700명의 중국인을 학살했다”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연합뉴스

### 1) 커피숍 매매

#### 북구 우산동 상업지역

□ 유동인구 많음, 시설완비, 현 상업중 (커피, 식사, 맥주 판매가능)

보증금 200만 월세 100만 (시비 2,500만)

### 2) 커피숍 매매

전대 정문 모아 A.P.T 후문 앞 코너

□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

시설 완비, 코너자리, 원룸촌 내 위치 (커피, 식사, 맥주 판매가능)

(※ 주인직매) 010-6670-9800

###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 (사무실 및 오피스가 건물)

□ 감정가 (분할시) - 56억

□ 용자 - 26억 (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 38억

1층 (상가) 120평 (정원, 전차발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룬)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 경치좋음)

010-7384-7800

###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1. 동구계림동 (근린시설) (토 55평, 건 75평) (1층 점포, 2층~3층 사무실, 4층 주택, 지하 점포) 광주동부 소방서 북측인근 (영북 2차선 도로 접함)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3억2천

2. 광산구 우산동 (숙박시설) (토 150평, 건 1444평) (1층 - 식당, 2층~5층 룬 50개) 하남 시영아파트 북측 인근 위치 - 상가지대 감정가 11억3천 - 최저가 7억9천

3. 서구 풍암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 건 131평) (1층~3층 총론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만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시영아파트 단지 내, 주변 아파트단지, 코너자리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5. 서구 쌍충동 (숙박시설) (토 90, 건 364평) 1층~5층 총론 37개, 운전역 3분거리 감정가 12억 - 최저가 5억5천

6. 북구 중흥동 (모텔) (토 81평, 건 298평) 월수익 약 900만 가능, (5층 총론 32개)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6천7백

수익성 상가 (주택)

1. 북구 중흥동 (토 46평, 건 50평) ※ 토지 평당 180만원 1층~2층 주택 (2층 주택 월세 30만 가능)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8천5백만

2. 남구 월산동 (토 36평, 건 20평) 동신대 한방병원 부근, 약 3m 포장도로 접 감정가 5천9백 - 최저가 5천9백

3. 동구 산수동 (토 42평, 건 25평) ※ 토지 평당 150만원 단층주택, 다용도실 약 6평 별도있음 감정가 6천8백만 - 최저가 6천 8백만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1. 북구 일곡동 (토 52평, 건 72평) ※ 1층 점포 2층 주택 코너자리 감정가 1억9천8백 - 최저가 1억9천8백

2. 북구 연제동 (토 84평, 건 155평) ※ 1층~2층 상가, 3층 주택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 2천

3. 동구 계림동 (토 36평, 건 55평) ※ 1층 (음식점, 창고) 2층 (주택) 감정가 1억8천5백 - 최저가 1억8천5백

4. 동구 중흥동 (토 34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유리은행 광주지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선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반) 주말반 (오전, 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834-4800 010-6832-9700